

『표준 새번역』 이사야 1:1-9

초역과 최종안의 재고

-내용 동등성 원칙과 히브리 문학적 특징의 우리말 표현과의 균형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철우*

1. 들어가는 말

1984년 여름과 1987년 여름에 각각 대만과 홍콩에서 성경번역 연수회(workshop)가 있었다. 필자는 1985년에 번역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홍콩 연수회에만 참석을 하였다. 그 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바로 나이다 박사(Eugene Nida)였다. 그 연수회를 통하여 그의 번역원칙과 이론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 표준새번역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을 더욱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이론은 이미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 그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성경 본문을 다른 언어로 쉽고 평이하게 옮기는가, 그리고 원문의 문법 형식이나 관용적 표현들의 사전적 의미를 번역에서도 그대로 옮기는 “형식 일치 번역”이 아니라, 그 주어진 원문의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정확히 전달하느냐는 것이다. 그의 번역이론의 핵심은 “내용 동등성 원칙”¹⁾이다.

문장의 내용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 즉 “형식 일치”를 벗어나,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문장 구조 및 어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성서공회가 제시했던 표준새번역 번역 지침이었다.

“원어의 뜻을 분명히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²⁾

그 연수회를 통하여 우리의 번역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말 표현상의 여러 구체적 문제들을 점검할 수 있었고, 특히 성경 번역에 있어서 “내용 동등성 원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가능한 한 살릴 필요가 있는 원문의 문학적 특징과 언어의 예술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그것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일 경우 더욱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회의 보수적 정서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있다. 성경 원문에 나타나는 문학적 특징들을 우리말 표현에 재현하기 위해 부득이 직역을 필요로 하기도 하며, 형식 일치의 부분적 필요성 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이 “내용 동등성 원칙”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문제를 놓고 나이다 박사와도 많은 토론을 하였다.

* 목사, 강남교회, 구약학.

1) dynamic equivalence or functional equivalent translation.

2) 민영진,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의 번역지침과 특징”, 기독교 사상, 93년 2월호, p. 41-50.

필자의 개인적 결론은 결국 좋은 번역은 이 양자간, 즉 내용 동등성 원칙과 형식 일치와 기타의 문제들과의 바른 균형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실제 번역 과정에서 이러한 균형을 맞추어 번역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표준새번역에서는 실제 이미 교회에서 많이 익숙해져서 바꾸기가 어려운 개역의 표현을 상당수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지나친 “내용 동등 원칙”에 의한 번역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미 고정화되어 있는 표현의 수용이라는 차원 이상의 더 근본적 면모를 갖고 있다. 원문에 나타나는 “문학적 특징”은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문학적 수사학적 특징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우리말에서도 그렇게 “강조된 내용”을 표현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원문이 갖고 있는 형식적 특징을 우리말에 직접 옮겨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것도 성경 번역에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필자의 관심은 히브리어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특히 본문의 문학적 특징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신학적 내용을 어떻게 우리말에 반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말에 반영시켜 원문의 문학적 특징에 담겨 있는 내용과 역동성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하는 것이었다. 이 문학적 특징에는 음성학적 특징과 수사학적 구조적 특징, 그리고 시적 운율 등의 여러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각 문장의 고유한 문학적 특징을 살리면서 이를 통해 원문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번역을 시도하였다. 특히 운문의 경우 시적 이미지와 분위기를 살리려 노력하였다.

물론 우리 번역의 일차적 목적은 히브리 성경의 “내용”을 평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나이다 박사(Eugene Nida)의 번역원칙 범주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적 범주 안에서 문학적 특징 자체와 거기에 담겨 있는 강조점을 살리려 노력하였다.³⁾

이 글에서 필자는 표준새번역의 초역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했던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려 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소개하고, 표준새번역 최종안에서 채택된 내용과 차이 등을 소개함으로써 차기의 성경 번역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 그리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의 번역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본문의 일차적 내용 파악(초역)

주석적 연구(본문 비평, 본문의 역사 비평적 연구, 문학적 수사학적 분석, 신학적 이해)

문학적 수사학적 특징과 이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 파악

우리말로 직역

외국어 번역 성경들과의 비교 연구

개역과 공동번역 등과의 문체 비교

우리말 의역

히브리 문장의 특징과 강조점을 우리말 구조 안에서 살려보려 시도.

여기에서 필자가 소개하는 초역은 이사야 1:1-9이다. 각 절의 번역과정에서 고려되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상에 나타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점을 검토하였다.

3) 이것은 히브리 문학적 특징을 고려하여 히브리의 시적 특징을 스페인어 성경에 담아내려 한 스페인 구약학자 Luis Alonso Schökel의 시도이기도 하였다(Neuva Biblia Española: 이하 NBE).

2. 표준새번역 초역 과정의 쟁점과 표준새번역 최종안의 재고(장절별 연구: 사 1:1-9).

<<사 1:1>>

표준새번역 최종안(표준새번역 성경으로 출판된 표현):⁴⁾

1:1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초역: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로서, 유다 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것이다.

(1) 여기에서 이러한 문장 구조를 취한 이유는 가급적 히브리 원문의 문장구조를 살리려는 의도로 시도된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의 절 중간의 정지부호(stops)인 아트나흐(Athnah)를 중심으로 아트나흐(Athnah) 앞의 내용을 우리말 번역의 쉼표 앞에 두고 그 뒤의 내용을 쉼표 뒤에 두고자 한 것이다. 이 문장은 산문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히브리 본문의 언어적 특징을 살리려 시도한 것이다.

(2) 표준새번역 최종안에 “이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존”(חֲזֹן)이고, 개역에서는 “이상”, 공동번역에서는 “계시”로 번역되었던 것인데, 개역개정에서 다시 “계시”로 돌아온 것이다. “계시”가 현대인에게 더 쉽게 이해되는 표현이다.

(3) 표준새번역 초역의 “--의 것이다”를 공동 번역에서는 “어찌 될 것인지를 내다본 것”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하존”을 두 번 번역한 것에 해당된다.

<<사 1:2>>

표준새번역 최종안:

1:2 하늘아, 들어라 !

땅아, 귀를 기울여라 !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초역: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저들을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으나

오히려 저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1) 이 절은 운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적 특징을 살리려 노력하였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는 히브리 원문의 병행구를 그대로 살린 것이다. 여기에서 “들어라”는 “샤마”(שָׁמַע: to hear)를 번역한 것이며, 이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귀를 기울여라”는 유사어 “아잔”(אָזַן: to listen)을 번역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아잔”은 명사형(오젠)에서 “귀”라는 의미를 갖고 있

4) 사 1:1-9에 관한 한, “주”를 “주님”으로 고친 것(2, 4, 9절) 외에는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내용은 초판과 동일함.

기 때문에 이를 살려서 “귀를 기울여라”로 번역한 것이다. 이 점에서 개역의 번역 “귀를 기울이라”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공동번역도 이와 유사하다.

(2) “키 야훼 디베르”(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에서 “키”(כִּי: for, because)의 번역을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문맥의 흐름상 독자들이 이 표현(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안에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즉 “말씀하시므로”라는 이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므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적인 긴장감과 긴박성과 속도감과 단순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를 생략한 것이다.

개역은 시적 긴장감과 단순성을 살리지 못하여, 산문처럼 느껴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개역 개정판도 이 개역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공동 번역(그리고 NBE)은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를 완전한 한 문장으로 독립시켜서 번역하였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⁵⁾

(3) 2절b는 또 하나의 히브리 시의 압권이다. 음성학적 차원에서 매우 치밀한 병행을 이루며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은 언약의 전형적 표현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적 도식과 유사하다(창 17:7; 출 6:7; 레 26:12; 신26:16-19; 29:13; 렘 7:23; 11:4; 24:7; 30:22; 31:1, 33; 32:38; 겔 11:20; 14:11; 36:28; 37:23).⁶⁾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배신한 죄, 그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저버린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러한 관계의 밀접성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이 치밀한 병행구조로 표현되어 있다.

이 문장을 음역하면 다음과 같다:

banim giddalti beromamti // wehem pashu bi

우선 여기에서 단어들의 시작이 입술소리(labial)로 되어 있다(두 번째 giddalti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술소리이다). 특히 “b”가 중심 음소(phoneme)이다.

wehem(וְהֵם “그러나 그들은”)은 banim(בָּנַי)과 매우 유사한 음성적 병행을 이루면서 두 단어간의 상호 밀접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접속사 “w”(ו: but)와 이어지는 대명사 “hem”(הֵם: they)을 통하여, 당연히 기대되는 이스라엘의 충성과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선포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서 “내가” 또는 “나를”(음소 “i” ו)이 반복되며 “나”(하나님)의 은혜가

5) cf. Traduction Oecuménique de la Bible(이하 TOB): C'est le Seigneur qui parle; 영어번역 성경(KJV, RSV, JB, NEB, NKJV 등)에서는 대개 “For”를 살려서 번역한다; 그러나 영어번역에서는 대개 콜론이나 세미 콜론 부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For”를 살려서 번역하여도 문장이 산문처럼 길어졌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예: NIV: Hear, O heavens! Listen, O earth! For the LORD has spoken: "I reared children and brought them up, but they have rebelled against me.; RSV: Hear, O heavens, and give ear, O earth; for the LORD has spoken: "Sons have I reared and brought up, but they have rebelled against me.)

6) E. A. 마튼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E. A. Martens, Plot and Purpose in the Old Testament, IVP, 1981), 생명의 말씀사, 1990, p. 82-84.

강조된다. “내가 그들을 자식으로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חמ hem) “나를”(בי bi)반역하였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 번역에서 “나”(gidalti; beromamti: “나”의 두 번 반복; bi: “나를”)와 “그들”(hem: 강조용법으로 특별히 사용된 대명사)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와,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이 대조적으로 강조되어야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역 2절b에서 “내가 저들을” // “저들이 나를”이라는 우리말 병행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앞 구절의 기대치와는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라는 말을 더 첨가하였다.

(4) “파슈우”(פשוּ)는 언약적 관계의 파기나 단절을 나타내는 어휘로서⁷⁾ 주로 “배반하였다”(rebelled)로 번역되는 단어이다⁸⁾.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간의 관계가 부자지간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배반 또는 배신보다 의미는 다소 약한 듯하지만 “거역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문체(style)라는 관점에서 “하였다”보다는 “했구나” 또는 “했노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인 분위기를 더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으나, 우리의 번역 원칙상 고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포기하였다.

<<사 1:3>>

표준새번역 최종안:

1:3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초역: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나의 백성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는 구나.

(1) 여기서의 내용적 초점은, 소도 나귀도 제 임자의 고마움을 알건만, 그 많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님의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짐승에 비유하여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질타하는 것이다. 아트나흐(Athnah)를 중심으로 3절a에서 소와 나귀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3절b에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이 다루어진다. 3절a와 3절b는 서로 반의어적 병행구로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절a에서 히브리어 “야다”(יָדָע: 알다)가 서두에 나오고, 3절b에서 부정어 “로”(לֹ: not)가 두 번 반복되면서(לֹ로 야다; לֹ로 히트보난), 이스라엘의 “알지 못함”을 질타한다. 여기에서 이 강한 부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3절b도 아주 선명한 병행구를 이루면서 가슴을 두 번치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과 문체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 로לֹ 야다 // 암미 로לֹ 히트보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구나).

(2) 3절a는 병행구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병행의 효과를 높이는 음성학적 특징은 3절aa와 3절ab의 서두에 나오는 모음 “아”와 각각의 끝에 나오는 소유 대명사 “우”(ו)와 “아브”(י)이다.

야다 쇼르 코네후(קנהו) // 바하모르 에부스 브알라브(באלרב)

(3) 여기에서는 3절a와 3절b 각각의 병행적 요소와 이 양자 사이에 있는 반의어적 병행의 요

7) E. A. Martens, p. 60; Rolf Knierim, "pesha': crime":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E. Jenni / C. Westermann, pp. 1033-1037.

8) JB, NIV, RSV, TEV에서 모두 “have rebelled”로 번역하고 있다; Einheitsübersetzung der Heiligen Schrift(이하 EHS): sie sind von mir abgefallen; TOB: eux, ils se sont révoltés contra moi(cf. Edmond Jacob, Esaïe 1-12, Commentaire de L'ancien Testament, Genève, 1987), p. 37.

소를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는가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3절a를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으로 번역하였다.

여기에서 더 정확한 문자적 번역은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이다. 그러나 “제”가 반복됨으로서 병행적 효과는 높여지지만, 3절b가 3절a에 비해서 너무나 길어져서 시적인 단순성과 함축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였다(전반부[3절aα]와 후반부[3절aβ]는 3 + 3 의 운율적 병행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대신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 본문 3절 b에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말에서 반복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빠지는 대신 “알다”가 반복되게 되었다.

“소도-----알고
// //
나귀도 -----알건만”

이러한 병행구조의 한 가운데, 목적어로, “제 임자를 // 주인의 구유를”이 들어가서 병행을 이루도록 우리말 문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표준새번역 최종안에서 3절aβ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진 느낌이 든다. (히브리 원문에는 3절aα와 마찬가지로 단지 세 개의 단어뿐이다.)

초역: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최종 번역: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

(4) 3절b를 번역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했던 점은, 여기에서 3절a에 나왔던 “야다”(עָדָה 알다 to know)라는 동사가 다시 나오며 동일한 의미군에 속하는 단어 “빈”(בִּין 깨닫다 to understand)이 이와 병행을 이루며 나온다는 사실과, 이 두 단어가 모두 부정어 “로”(לֹ: not)와 연결되어 이스라엘의 “무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한 괴로움으로 가슴을 두 번 치는 것과 같은 강한 긴장감을 주는 표현이다.

이스라엘 로(לֹ) 야다 // 암미 로(לֹ) 히트보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구나).

그리고 “이스라엘”(יִשְׂרָאֵל)과 “암미”(עַמִּי: 나의 백성)가 3절bα와 3절bβ의 서두에 나오면서 병행을 이룬다. 이것을 살려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가 될 것이다.

표준새번역 최종 번역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출판되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기에 특별한 이의는 없다. 히브리어의 기본 구조를 잘 살리고 있는 표현이다. 이것은 초역 과정에서도 고려되었던 번역이다. 그러나 필자가 초역에서 이와는 다른 우리말 구조를 택한 데는 약간의 이유가 있었다.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이러한 병행구조에 많이 익숙해 있지 않은 우리 독자들에게 다소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NEB와 TEV⁹⁾처럼 이를 풀어서 병행구를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시도된 것이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문장 구조였다. 그

9) NEB: "but Israel, my own people, has no knowledge, no discernment."; TEV: "But that is more than my people Israel know. They don't understand at all."

리고 여기에서 “로”(לֹ: 아니다)가 3절ba와 3절bβ 각각의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서로 병행을 이루며 “특별히” 강조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말의 3절ba와 3절bβ에 “아무 것도”를 삽입시켜서 병행을 이루며 이 부정어(“로”)를 강조하였다.

초역은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초역에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문장이 선택되게 된 것이다(“이스라엘, 나의 백성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는 구나”). 이 양자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는 약간의 관점의 차이이다. “이스라엘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나의 백성은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는구나”로 번역했어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표준새번역의 최종안도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번역은 “의미전달 효과의 극대화”와 “원문의 표현적 특징과 우리말의 미학적 효과, 그리고 교회의 보수적 정서” 사이의 균형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양자를 “우리말에 적절히 균형 있게 잘 반영시키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 본문에 대한 충분한 주석적 이해와 의미파악과 문학적 특징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다양한 낱앙스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우리말에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우리말 감각이 요청되는 작업이다.

<<사 1:4>>

표준새번역 최종안:

1:4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초역:

아 슬프다! 죄 많은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요 부패한 자식들,
이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겼으며,
그에게 등을 돌렸도다.

(1) “아 슬프다”는 “호이”(הוי)의 번역이다. 이 “호이”는 위협과 탄식의 외침을 나타낸다.¹⁰⁾ 이 어휘는 일반적으로 재앙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경고와 위협의 컨텍스트에 주로 사용된다(사 5:8이하; 암 5:18; 6:1).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질타(invective; a chiding speech of warning)와¹¹⁾ 동시에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며 재앙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연민의 괴로움을 담고 있는 탄식이 선포되고 있다.¹²⁾ 여기에서 이 “호이”도 이러한 의미, 곧 하나님의 질타와 슬픔을 동시에 담고 있는 표현이 되어야 하였다.

이 단어(“호이”)가 개역에는 “슬프다”로, 공동번역에는 “아”로 번역되어 있다. 개역에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재앙에 대한 탄식 소리(音 sound)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공동번역의 “아”라는 번역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의 깊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아 슬프다”라는 절충적 번역을 택하였다.

(2) “죄 많은 민족”은 “고이 호테”(גוי חוטא)의 번역이다. “죄 지은 민족”이라는 표현도 무난

10) George Buchanan Gray, The Book of Isaiah I-XXVII, ICC, p. 10.

11) Ronald E. Clement, Isaiah 1-39, NCBC, London, 1980, p. 31; John D. W. Watts, op.cit., p. 16.

12) 사 1:1-9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바남: בני]으로 표현된다(2절; 4절). 이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거역으로 인하여 야기된 불행과 재앙으로 계속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꾸중하며 가르치시는 사랑과 징계의 아버지로 묘사된다(2-5, 9절); 참고, 왕상 13:30(in lament).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죄 많은”으로 번역한 이유는 “고이 호테”가 그 다음에 나오는 “암 케베드 아본”(עם כבד עון)과 내용상 병행을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의 죄의 크기를 강조하고 있는 컨텍스트임을 감안하여 “죄 많은”으로 번역하였다.

(3) “암 케베드 아본”을 개역에서는 “허물진 백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케베드”(כבד heavy)의 의미를 살려서 표준새번역 최종 번역처럼 “허물이 많은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필자는 이를 초역에서 “불의로 가득 찬 백성”으로 번역하였다. “고이 호테”에 “죄 <많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이와 다소간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불의로 <가득 찬> 백성”이라고 번역하였다. “아본”의 의미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것을 “the distortion of justice”의 의미로 보아, “불의”라는 말을 선택하였다.¹³⁾ “범죄로 가득 찬 백성” 또는 “범죄 많은 백성”(NIV: people loaded with guilt; KJV, NKJV, RSV, NRSV: people laden with iniquity; TOB: people chargé de crimes)등이 가능하였다. 표준새번역 최종안(“허물진 백성”)은 의미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한다.

(4) 초역에서 “제라아 프레임”(זרע מרעים)은 “사악한 종자”로 번역하였다. 최종안에서 “프레임”은 “흉악한”으로 번역되었다. 별 이의는 없다. 단지 히브리 동사 “라아”(רעה)의 Hiphil participle(doing evil, wickedly)의 의미와 관련하여, 필자는 “사악한”이란 표현이 “wickedly”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사악한 종자”로 번역한 것이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에서는 “제라아 프레임”을 “행악의 종자”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번역은 나이다 박사(E. Nida)가 항상 문제시했던 번역이다. 그는 이 경우 “행악”이라는 명사형 대신에 형용사로 바꾸어 “행악으로 가득한 종자” 또는 “흉악한 종자” 또는 “사악한 종자”와 같은 구조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초역에서 “바님 마슈히팀”(בנים משחיתים)은 “부패한 자식들”로 번역하였다. “샤하트”(חחט)의 Hiphil participle의 “act corruptly”의 의미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개역에서 이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러나 “행위가”라는 말은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다(TOB: “fils corrompus”¹⁴⁾). 특히 4절a는 3 + 3, 2 + 2 의 운율을 따라 긴장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초역에서 이러한 운율적 긴장감을 살려 “부패한 자식들”로 번역하였다. 4절aβ(“사악한 종자요”)에서 “요”를 삽입한 이유도 그 뒤에 나오는 “부패한 자식들”과 단어 수(여섯 글자)를 맞추어 리듬을 주기 위함이었다. 더욱이, 4절aα가 히브리 원문에서는 3 + 3 구조로 명백한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운율적 효과를 우리말에서 살리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4절aβ에서나마 운율을 정확히 맞추어 리듬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물론 우리말은, 히브리어나 영어, 또는 스페인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액센트가 없는 언어이지만, 함께 연이어 발음되는 글자 수를 우리의 언어 습관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시적 분위기와 리듬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6) 4절ba도 역시 정확한 병행을 이룬다. 따라서 이 병행도 우리말에 살릴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초역에서, “이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겼으며”라고 번역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겼<다>”라고 문장을 끊지 않은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4절bβ “나조루 아호르”נזרו אחור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연결하여 번역해야 했다. 4절b 전체는 2 + 3 + 2 의 구조를 갖고 있다. “나조루 아호

13) Otto Kaiser, op.cit., p. 19.

14) Edmond Jacob, op.cit., p. 37; NIV: children given to corruption.

르”(직역: They have been estranged backwards; NIV: “and turned their backs on him”; NKJV: “They have turned away backward.”)는 후기 첨가일 가능성이 높다¹⁵⁾.

이 귀절은 LXX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며, 3-4절의 전체적인 운율(3 + 3, 3 + 3, 3 + 3, 2 + 2)에 비하여 시행 하나가 더 많은 것이 된다(2 + 3 + 2). 그러나 이 표현은 엄연히 MT에 있는 본문이며 당연히 앞의 구절들과 연결하여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세 구절을 한꺼번에 연결하여, 위와 같은 초역을 하게 된 것이다.

(7) 표준새번역 최종안에서는 TEV를 따라 3인칭 복수 동사(아즈부 **עָזְבוּ**, 니아쭈 **נִאָצְבוּ**)를 2인칭 복수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그러나 왓츠(John D. W. Watts)는 사 1:2-4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증인인 “하늘과 땅”을 부르시어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를 고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절a는 하나님의 전령이 하늘과 땅을 향해 선포한 말씀으로 보고(Herald to Heavens and Earth), 2절b와 3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고(Yahweh to Heavens and Earth), 4절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 즉 “하늘과 땅”의 선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특히 5절에서부터 비로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향해진 증인들(하늘과 땅)의 선포가 나온다고 본다.¹⁶⁾

물론 대부분의 설교자나 독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왓츠(Watts)의 이 구분은 하나의 가설이다. 그러나 이것이 간과할 수 없는 설득력 있는 설명인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본문의 인칭을 그대로 놓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대로 놓아두고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잘 된다.

(8) “돌렸도다”에서 “도다”라는 표현은 개역에 주로 나오는 옛 표현이다. 표준새번역 최종안에서 “돌리고 말았구나”로 바뀌었다. 표준새번역의 번역 원칙 중의 하나가 고어 대신에 현대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고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시적인 뉘앙스와 표현 자체에 종교적 표현으로서의 경건성과 무게를 더하여 주는 것이라면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사 1:5>>

표준새번역 최종안:

1:5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초역:

너희가 아직 어디를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배반하느냐?

머리가 온통 상처투성이며, 속은 온통 병들어 있구나.

(1) “알 메”(עַל מַה: On what)는 “어디를”로, 투쿠 오드(תָּכוּ עוֹד: 투쿠[receive a blow: Hophal impf. 2mpl.of נִכַּח]; 오드 [yet])는 “아직 더 맞으려고”로 번역하였다.

(2) “토시푸 사라”(תוֹסִיפוּ סָרָה: 토시푸 Hiphiel. Impf. 2mpl of 야사프 יָסַף[add. increase, do again and more]; 사라 [apostasy])는 “계속하여 배반하느냐?”로 번역하였다. 이 경우 “계속하여

15) John D. W. Watts, p. 14; Hans Wildberger, Jesaja 1-12, BKAT 10, 1980, pp. 18-19; more recently, Joseph Blenkinsopp, Isaiah 1-39, AB, 2000, p. 179.

16) John D. W. Watts, pp. 10-15.

배반을 더해 가느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짧은 표현을 택하였다.

(3) 표준새번역 최종안은 개역 성경과 KJV, RSV, NIV, TEV를 따르는 것인데, 필자는 여기에 서 “알 때”(על מה: on what)를 굳이 “어찌하여”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¹⁷⁾ 이 본문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¹⁸⁾

레바브 다바이(לבב וי heart, sick; [개역]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KJV: “the whole heart faint”; RSV: “the whole heart faint”; NIV: “your whole heart afflicted”): 여기에서 레바브 (heart)는 꼭 심장만을 의미하지 않고 내장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개역과 개역 개정)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다. 매를 맞는다는 이미지가 다소 육체적인 가해와 아픔을 연상시키고 있고, 머리와 구체적인 병행을 이루는 신체의 일부, 즉 추상적이 “마음”이라기보다는 육체의 한 기관으로 보아 “속”으로 번역하였다(“속은 온통 병들어 있구나”).¹⁹⁾

(4) 5절a와 5절b에서는 운율이 약간 차이가 나서(5절a: 4 + 2; 5절b: 3 + 3), 이 부분은 우리말에서도 분리시켰다. 그리고 더 밀도 있는 병행을 이루고 있는 5절b에서 “온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 병행적 면모를 강조하려 하였다.

5절ba: kol(כל) rosh(ראש) loholi(לולי) :

5절bb: wekol(וכל) lebab(לבב) dawway(וי) :

<<사 1:6>>

표준새번역 최종안:

1:6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초역: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멍들고 상처나고 터진 데 뿐이거늘,
아무도 이를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 주는 이 없구나.

(1) “폐짜”(פצע: bruise, wound, coming from “파짜” [פצע: bruise, wound by bruising])²⁰⁾는 주로 “타박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멍들고”라는 어휘를 선택하였다. “하부라”(חבורה: stripe, blow)는 “상처”라는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고, “테리아”(טריה fs. of “타리” רי ט, fresh, raw wound, not yet healed or even treated)는 “새로 맞은 상처”라고 번역할 수도 있었으나, “터진 데”라는 말이 이제 금방 상처를 입어서 아직 치료되지 않은 채로 떨어져 있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 어휘를 선택하였다. 물론 그 이유는 병행이 주는 시적 긴장감과 표현의 연속성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2) 6절b에서는 어떻게 부정어(“로” לא) 세 개로 강조된 내용, “이스라엘이 그토록 상처를 입었으나 그를 돌보아 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였다. 문자 그

17) “On what (part of the body) will ye yet be smitten”(George Buchanan Gray, p. 11); “Upon what will you be beaten more? Will you add rebellion?”(John. D. W. Watts, p. 11); “Where will you still be smitten...”(Otto Kaiser, op. cit., p. 16); JB(“Where...? ”); EHS(“Wohin soll man euch noch schlagen?”); TOB(“Où faut-il encore vous frapper...”)(TOB; Edmond Jacob, op. cit., pp. 37, 44).

18) John D. W. Watts, op. cit., p. 19; F. Buhl, “Zu Jesaja 1:5,” ZAW 36(1916), p. 117.

19) John D. W. Watts, pp. 11, 14; G. R. Driver, JSS 13[1968] 36; 공동 번역: “속”.

20) cf. Otto Kaiser, p. 17.

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하였다”(수동태의 의미)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능동으로 바꾸어 보면, 그들을 치유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여기의 신학적 초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다(2절b; 4절b). 즉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이다. 이것은 언약의 파괴 행위이다(히브리 동사 “파사”[2절b]에 내포된 의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의지하나 그들을 도와 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사 30-31; 44:9-11).

이러한 신학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어 번역하는 것은 의미전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필자는 6절b의 수동적 의미를 능동형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6절b는 2 + 2 + 3 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2 + 2”(6절ba)를 “아무도 이를 짜내고 짜매고”로 묶고, “3”에 해당되는 부분(6절bβ)을 이와 분리시키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이 없구나”로 번역하였다.

(3) “조루”(רָרַ: pressed out; drained)²¹⁾는 “짜내고”로 번역하였으며, “후빠슈”(חִבְשׁוּ: Pual perf. of שָׁבַח: to bind, bind on, bind up)는 “짜매고”로, “루크카”(רִכְכָּה: Pual perf. 3pers.sing.fem. of רָכַךְ: to be softened)는 “부드럽게 해주는”으로 번역하였다. 블렌킨소프(Blenkinsopp)는 이 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For the sole of the foot to the head
there is no soundness in him -
bruises, sores, and open wounds,
not drained, not bandaged, not treated with oil.²²⁾

<<사 1:7>>

표준새번역 최종안:

1:7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초역:

너희의 땅이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이 불에 탔으며,
너희의 토지가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먹혔으니,
마치 소돔의 황폐와 같이 되고 말았구나.

(1) 이 절은 전체적으로 2 + 3, 2 + 3, 3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2 + 3(7절a)과 2 + 3(7절b αβ)를 하나로 연결하여 이해하고, 나머지 3(7절bγ)를 독립시켜 번역하였다. 개역 성경도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7절a와 7절bαβ의 핵심적 요소는 네 개의 2인칭 복수 소유 접미어 “첸”(כֶּם: “너희”)이다. 개역의 구조와 유사하게 “너희”를 각 문장 앞에 주어로 놓아 “너희”를 강조하였다. 7절ba(오클람: אִכְלִים: Qal. pt. act. pl. from “아칼”אָכַל: to eat)는 엄밀한 의미에서 능동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가 7절a와 연결되어 나오고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개

21) Otto Kaiser, p. 17; the passive form of Qal cf. G-K, ss.67m, 52e.

22) Joseph Blenkinsopp, Isaiah 1-39, p. 177.

역의 문장구조와 마찬가지로 수동형을 취하였다.

개역에서 “오클림”을 “삼켜졌으며”라고 번역하였으나, 필자는 “아칼”(אכל: to eat)을 그대로 살려서 “먹히었으니”라고 번역하였다. “삼키다”를 의미하는 전형적인 히브리어 “발라이”(בלע)와 구분하여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3) “마흐페카트”(מהפכה: overthrow)는 항상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되어 나온다(신 29:22; 사 13:19; 렘 49:18; 50:40; 암 4:11). 여기에서 필자는 BHS의 제안에 따라서 “자림”(זרים foreigners)을 “소돔”(סדום 소돔)으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²³⁾ 만일 MT본문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마치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케 되었구나”가 될 것이다.

<<사 1:8>>

표준새번역 최종안:

1:8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 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초역:

딸 시온은 포도밭의 초막같이 되었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되었고,
포위된 도성처럼 되었구나.

(1) 8절b의 “크이르 네쭈라”(כעיר נצורה)의 직역은 “보호된 도성”이다. 여기에서 “네쭈라”(נצורה)는 “나짜르”(נצר: keep watch, guard, protect)의 Qal. 수동 분사 여성형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직역은 “보호된”이 된다. 그러나 이 컨텍스트에서 “보호된 도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LXX, 시리아 사본, 타르굼, 불가타 등의 전통에 따라, “네쭈라”(נצורה: Niphalt. pt. f. from נצר: enclose, besiege)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개역도 실제로는 이 수정된 어휘를 번역한 것에 해당된다. (“에워싸인 성읍 같이”: enclosed or besieged)

왓츠는 이 단어를 MT대로 그대로 두고 “like a fortified city”라고 번역하고 신학적 해석을 달고 있으나, 무리라고 판단된다.²⁴⁾

(2) 여기에서 초점의 대상은 “크”(כ: like)이었다. 이 세 개의 “크”(כ)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전체적으로 개역의 문장 구조를 따랐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개역).

개역은 8절a의 “노트라”(נותרה: Niphalt pt. f. יתר: be left over, remain over)를 “겨우 남았도다”라고 번역하여 문장의 맨 뒤에 오게 하였다. 대개의 번역 성경들(RSV, NIV, JB)이 “노트라 크”를 “be left like”(TOB: “va rester comme”) 즉 “--처럼 남아 있게 되었다”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적 특징인 “크”(כ: like)의 세 번 반복을 통해 나타난 병행구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독자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말 뜻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이 되었다”는 표현을 각 구절마다 반복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 본문의 병행구가 갖고 있는 리듬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시온이 홀로 외로이 남아 있게 된 “비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되었다”를 세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23) JB, NBE, NEB, 공동번역이 이 단어를 “소돔”으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NJB에서는 [זרים: foreigners]이 그대로 번역되었다).

24) John D. W. Watts, op.cit., pp. 12-14.

“is left like”를 직역하여 “--처럼 남아 있게 되었다”는 말은 어색한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3) 표준새번역 최종안도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히브리 본문의 시적 긴장감과 운율을 충분히 살려주지 못하고 있다.

8절은 2 + 2, 2 + 2 의 운율을 가진 치밀한 병행구이며, 첫 단어와 끝 단어가 발음상 유사성을 가지고 병행을 이루고 있으며(“노트라”: נֹתְרָה // “네쪼라”: נִצְוָרָה), 동시에 내용상 밀접히 연결되게 표현되어 있다(“딸 시온” // “포위된 도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 개의 비유(포도밭의 초막같이: “크수카 브카렘”: כִּסְכָה בְּכַרְם //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키블루나 브미크사”: כַּמְלֹוֹנָה בְּמִקְשָׁה)가 완전한 병행을 이루며 나온다. 따라서 8절은 전체적으로 교차대구(chiasmus) 구조를 갖고 있는 완전한 운문이다. 그런데 8절의 표준새번역 최종안은 문장이 산문체적이며 너무 길어진 감이 있다.

굳이 “외로이 홀로 남아 있게 된 사실”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외롭게 남아 있는 것이”에서 “있는 것이”라는 표현과 우리말 조사 “과”를 빼고, 다음과 같이 번역함으로서 8절의 교차대구 구조와 운율을 좀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성 시온이 외로이 남아,
포도원의 초막같이 되었고,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되었으며,
포위된 성읍같이 되었구나.”

<<사 1:9>>

표준새번역 최종안:

1:9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 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초역: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이라도 살려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과 같이 되었을 것이며,
고모라처럼 되어 버렸을 것이다.

(1) 여기의 문제점은 아트나흐(Athnah)를 어디에 위치시키는 것이 낫다고 보느냐는 본문 비평적 문제와 9절b의 병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일 것이다.

(2) MT에서는 아트나흐(Athnah)를 “키므아트”(כִּמְעַט: almost, nearly, little) 뒤에 위치시켜서 3 + 4 의 구조를 이루게 하고 있다. 그리고 9절b를 2 + 2 로 만들고 있다. 왓츠(John D. W. Watts)가 지적하듯이 이것은 균형을 잃은 운율이고, 내용도 다소 어색하다(If Yahweh of hosts had not left to us “a survivor like a little”). 왓츠는 LXX, Syr, OL 과 타르쿰을 따라 아트나흐(Athnah)를 “키므아트” 앞, 곧 “사리드”(שָׁרִיד: a survivor) 바로 뒤에 놓아, 3 + 3, 3 + 2 구조로 만들어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If Yahweh of hosts had not left to us a remnant
almost like Sodom we would have become,
Gomorra we would resemble.”²⁵⁾

그러나 9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적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간이라도 남겨 두지 않으셨

25) ibid., p. 12.

다면 유다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소돔처럼 멸망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²⁶⁾. 따라서 여기에서 “거의 소돔처럼 되었을 것이다”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다²⁷⁾. 따라서 MT의 아트나흐(Athnah)를 현재 있는 위치에 그대로 놓아둔 채로 번역하는 것이 무방하며, 이 경우 위의 초역과 같이 될 것이다.

(3) 이 경우, 9절은 “만일 하나님이 생존자를 얼마간이라도 살려 두지 않으셨더라면(9절a), 우리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9절b)”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9절b에서 9절ba와 9절bβ사이의 병행적 특징을 잘 살려야 할 것이다.

소돔 // 고모라

하이누(הֵינּוּ had we become) // 다미누(דָּמִינוּ had we resembled)

(4) 표준새번역 최종안에서 히브리어 “라누”(לָנוּ: to us)를 살려서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무방하리라고 본다. 필자는 초역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넣을 것을 고려는 하였으나, 바로 뒤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는 편이 더 매끄러운 우리말 표현이 될 것으로 보아 이를 생략하였다.

3. 나가는 말

위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성경 본문의 번역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내용 동등성의 원칙에 의한 내용의 정확한 전달의 필요성, 본문 비평의 문제, 히브리 문학적 특징의 감지,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어떻게,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말에 표현”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

표준새번역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것은 차기 역자들이 직면해야 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다. 성경 번역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의 산물이다.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성경이 나오기가 힘든 것이다. 새로운 세대에는 역자들의 새로운 노력들을 좀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터전 위에서 더욱 진지하고 훌륭한 번역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소고를 마친다.

26) 신 29:22-23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된 것으로 묘사된다.

27) George Buchanan Gray, *The Book of Isaiah I-XXVII*, ICC, p. 14: "Had not Yahweh of Hosts Left of us some that escaped, Like Sodom had we become, Gomorrah had we resembled."(p. 6); Joseph Blenkinsopp, *op. cit.*, p. 177: "Had not Yahweh of the hosts left us a few survivors, we would have shared Sodom's fate, resembled Gomorrah."